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일일투어 시범 운영

정읍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정당여름, 정읍시 일일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타투어는 7월 27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정읍의 인기 관광지인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내장산, 생화차거리를 방문하게 된다. 특히 이양사당숲을 아경명소로 재해석한 달빛사랑숲과 새로 조성된 미로분수 등 아경 관광도 포함돼 있다. 시는 시범운영이 끝난 후, 향후 개발원을 대상으로 반일(半日)투어를 운영하고, 신규 조성된 관광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과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교육생들이 정읍의 새로운 매력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며 "교육생들이 각 시군으로 돌아가 정읍의 홍보창구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여름철 폭염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고창군이 지난 28일 오후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로 폭염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대처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회의는 20일 고창군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이후 폭염상황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 폭염IT팀을 비롯하여 농·축산 분야의 부서가 참석해 각 분야별 폭염대책을 보고하고 부서별 협업 사항을 논의했다. 군은 폭염대책기간(5월 20일~9월 20일) 동안 △폭염IT팀 운영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음·면 살수차 운영 △폭염 취약계층 및 무더위쉼터 생수 배부 △취약계층 전화인부 및 방문 건강관리 △폭염 대비 농업인·농작물 피해예방 대책 △가족방역관 현장 예방 질병 예방 등을 추진하고 군 시책사업으로 관내 6개소에 양산냉장고를 운영해 폭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복지 대상자 서비스 향상 노력” ‘공약사업 속도 높인다’

고창군, 기억·존중 보훈문화 확산...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상해보험료 지원 등 추진

고창군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먼저, 고창군은 보훈수당을 지난해부터 기존 9만원에서 2만원 인상하고, 보훈수당 미신청자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80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한 심덕섭 고창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통합보훈회관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5억원 을 포함 총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교촌리 233-5번지 일원(현 가족센터)에 지상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짓는다. 심덕섭 고창군수의 사회복지분야 대표 공약인 활력수당(사회복지종사자

90개소 700명에게 10만원씩) 올해 첫 지급이 이뤄지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9000만원)을 신설하고, 맞춤형서비스 생활지원사 150여명 교통비를 월 1만원5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로 700만원을 지원했다. 고창군은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16억 원을 투자해, 지상층에 정원 16인(3인실 4개, 2인실 2개) 규모로 치매진단실을 건립했다. 공동거실(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과 욕공공간에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고창읍계교령자복지주택이 준공되고, 전체 128세대중

(11평 72세대, 8평 56세대) 113세대(88%)가 입주 또는 계약을 완료했다. 복지주택 1층에는 복지관, 경로식당, 체력단련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올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입주세대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창군은, 올해부터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 정착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 1년 이상 입소자 중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보증금, 주택개보수비용, 생활용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에 필요한 초기 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순수군비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자 수를 늘려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정읍시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맞아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방적인 점검에 나섰다. 28일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된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진 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총 77개의 공약사업 중 10개를 완료했으며, 5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53.4%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완료 사업으로는 음식물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과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 농촌 기본형 공약마을 확대 등이 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는 기존의 반기별 점검을 분기별 점검으로 전환해 공약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

는 계획이다. 농촌 기본형 공약마을 확대와 같은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경우 목표연도에 맞춘 진행율이 아닌, 진행률 100%(완료 후 계속 추진)로 변경, 이행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8일까지 부서별 추진상황관리카드를 취합해 남은 66개 공약사업에 대해 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8월 중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년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두며 민선 8기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후반기에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해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운영

8월부터 1개소→2개소 확대 운영...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8월부터 단시적·일시적 보육수요가 필요한 가정들을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보육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정된 제공기관에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 돌봄서비스이다.

현재 백산면 함께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부안온가족센터 내) 1개소를 추가 지정해 내달부터는 부안읍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이며 시간당 3000원의 정부 지원금과 2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월 6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하이사랑 홈페이지나 전화(☎ 1661-9861) 신청을 통해 예약한 뒤 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각 기관(함께하는어린이집 ☎ 063-582-0891 · 부안군육아종합지원센터 ☎ 063-584-1345)에 문의하면 된다. 최정애 교육청소년과장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의회, 새만금개발청 방문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제대 후 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라 이강세 부의장, 김두래 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전반기 의장)과 함께 지난 28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경환 청장과 새만금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장단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R4 및 농생명용지 7·2공구 지역을 산업·연구용지로 확대 건의 △새만금과 해상석산부지 산림치유공간 조성사업의 연계 방안 △새만금 철도에 부안군 노선 포함 여부에 대한 중장기

검토 등에 대해 건의와 함께 논의를 가졌다. 특히, 최근 부안군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양육점으로 확정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산업·연구용지 확대 시 입지적 이점을 고려하면 첨단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새만금 RE100 산단조성이 새만금기본계획(MP)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한 결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건의해주시는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새만



새만금과 부안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금 개발사업에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며 "부안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50세 이상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은 8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접종되고, 이후 일반 군민은 9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사업은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합병증의 위험성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전면 확대했다. 군은 지난해까지 50세 이상 군민 대상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가 추후 대상포진에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군민 보건복지 확충' 차원에서 전면 무료화를 결정했다. 소위 '봉숭의 왕'으로 표현되는 대상포진은 특별한 계절적 요인이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기온이 오르는 5월부터 급증, 8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질병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 걸리더라도 통증 및 주요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50세 이상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군민들이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휴가철 맞아 악취 배출 사업장 집중 단속 강화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속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돈사 산업단지 등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5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 및 사업장 관리 실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시범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인 악취 포집기 28대와 이동식 악취측정·포집 차량 1대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8개소와 가축분뇨법 위반 13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